

2025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Cartier

Inside the World of Cartier

1847년, 루이-프랑수아 까르피에는 파리 몽토르게유(Montorgueil) 거리에 작은 보석 아틀리에를 열어 메종 까르피에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 공방은 오늘날까지 1백7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얼리 하우스이자 위치메이커로 성장했다. 까르피에는 주얼리뿐만 아니라 워치, 향수, 가죽 제품, 액세서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독자적 세계인 '까르피에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메종의 역사는 단순한 보석의 연대기가 아니라 예술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 엮어낸 거대한 유산의 기록이다.



1백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까르피에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기보다 언제나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며 럭셔리리의 기준을 재정해왔다. 화약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이-프랑수아 까르피에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남달랐고, 세공사로서의 섬세한 기술과 감각을 인정받았다. 1847년 스승 아돌프 피카르의 공방을 인수해 자신의 이름을 건 아틀리에를 열어 까르피에의 역사가 시작했다. 메종 까르피에가 탄생한 19세기 중엽 파리 사교계에서는 화려한 주얼리에 주목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에 맞춰 까르피에는 탁월한 세공과 새로운 조형미를 발판으로 주얼리로써 빠르게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1874년, 창립자의 아들인 알프레드 까르피에가 경영을 이어받으며 메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알프레드는 세공 장인으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경영적 감각을 더해 브랜드의 체계를 확립했다. 1899년에는 파리의 중심가 뤼 드 라 빠(Rue de la Paix) 13번지로 이전하며 메종의 정체성을 완성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알프레드는 세 아들인 루이 조제프, 피에르 까미유, 자크 테오필

- 1 메종을 세계적 주얼리 하우스로 이끈 까르피에가 형제의 초상(1992년).
- 2 1912년 파리 뤼 드 라 빠 13번지에 위치한 까르피에 부티크 내부의 모습.
- 3 1909년 오픈한 런던 본드 스트리트 부티크의 초대장. 현재까지 이어지는 까르피에 맨션의 기원을 담은 유서 깊은 자료다.
- 4 1969년 처음 선보인 LOVE 브레이슬릿의 초창기 모습.
- 5 러시아 차르 니콜라 2세가 까르피에에 수여한 왕실 납품 허가증. 유럽 왕실이 사랑한 메종의 위상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 중 하나다.
- 6 1904년 에드워드 7세가 수여한 왕실 납품 허가증.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는 명예의 시작을 증명한다.

에게 하우스의 해외 경영을 맡기면서 까르피에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루이 조제프는 파리에서 혁신을 주도했고, 자크 테오필은 런던에서 귀족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피에르 까미유는 뉴욕 5번가에 까르피에 맨션을 열어 프랑스 예술 정신을 미국에 전했다. 세 형제의 협업과 각각은 까르피에를 왕실의 보석상에서 세계적인 메종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다.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King Edward VII)는 까르피에를 일찍이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Jeweller to Kings, King of Jewellers)”이라 칭송했고, 1902년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까르피에에 27개의 티아라를 주문했다. 이듬해 영국 왕실은 까르피에를 왕실의 공식 주얼러로 임명했고, 곧 러시아, 스웨인, 포르투갈, 태국,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의 왕실에서도 같은 영예를 부여했다. 또 프랑스 내에서도 까르피에는 일찍부터 귀족과 황실 주변의 후원을 받았다.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인 외제니 드 몽티조(Eugénie de Montijo)도 메종의 주요 고객이었으며, 우아한 디자인과 정교한 세공을 갖춘 작품들이 당시 파리 사교계와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프랑스 사교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까르피에는 황실이라는 공식 외전 무대뿐만 아니라 고급 사교 공간에서도 문화적 위상을 확보했다.

아이콘의 탄생

까르피에의 디자인 철학은 ‘모든 창작은 형태에서 시작된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다. 메종의 모든 작품은 하나의 드로잉에서 출발하며, 그 안에서 기능적 완성도와 감성적 표현이 공존한다. 이러한 철학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아이콘이 바로 ‘트리니티(Trinity)’, ‘LOVE’, ‘팬더(Panthère)’ 컬렉션이다.

트리니티는 1924년 창립자의 손자인 루이 까르피에(Louis Cartier)가 시인 장 콕토를 위해 세 가지 금속이 맞물린 반지를 제작하며 탄생했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가 각각 우정, 충실함, 사랑을 상징하는 이 반지는 현재도 메종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조형미는 까르피에 디자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예로 손꼽힌다.

자유분방한 1970년대의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어 Aldo Cipullo는 ‘LOVE’ 브레이슬릿과 ‘저스트 앵 클루(Juste un Clou)’를 선보였다. ‘LOVE’ 브레이슬릿은 사랑을 ‘고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현대적 낭만을 표현했고, 못



(nail) 형태의 ‘저스트 앵 클루’는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변환시킨 혁신적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두 컬렉션 모두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까르피에를 대표하는 아이콘 컬렉션 중 하나다.

1914년, 브레이슬릿 위치의 반점 무늬로 처음 등장한 팬더는 까르피에의 독창성이자 메종의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로 입지를 다졌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잔느 투상(Jeanne Toussaint)은 팬더를 우아함과 독립성, 강인함을 겸비한 여성의 상징으로 재해석해 컬렉션을 확장시켰다. 이후 팬더는 단순한 동물 모티브를 넘어 여성성과 자유의 은유로 발전했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메종의 독창적인 아이콘으로 자리했다.

시간을 조각한 메종

까르피에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왔다. 1904년, 루이 까르피에는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Alberto Santos-Dumont)을 위해 세계 최초의 현대적 손목시계 산토스(Santos)를 제작했다. 비행 중 시간을 보기 위해 주머니 시계를 꺼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인 발상이 결국 손목시계 시대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후 탱크(Tank), 배누아(Baignoire), 발롱 블루(Ballon Bleu), 파샤(Pasha) 등 시대를 대표하는 컬렉션을 잇따라 선보였다. 탱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 실



모든 창작은 형태에서 시작되고, 그 형태는 결국 까르피에의 세계를 완성한다



- 7 2022년 레노베이션한 뤼 드 라 빠 13번지의 아트리움 모습.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메종의 상징적 건축미를 자랑한다.
- 8 팬더를 메종의 아이콘으로 확립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잔느 투상(Jeanne Toussaint).
- 9 1912~13년경 파리 뤼 드 라 빠 13번지 부티크.
- 10 까르피에의 상징인 ‘팬더’가 처음 등장한 1914년 팬더 브레이슬릿 위치. 팬더의 무늬를 오닉스로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 11 2022년 새롭게 선보인 팬더 드 까르피에 브레이슬릿. 두 마리의 팬더가 서로 마주 보는 형상이 특징이다.

루엣에서 영감을 디자인으로 절제된 직선미를 보여줬고, 배누아는 타원형 케이스를 통해 우아한 곡선을 강조했다. 까르피에의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디자인하는 예술 작품으로 진화한 셈이다.

아름다움의 윤리를 실천하는 메종

오늘날 까르피에는 예술과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84년 설립한 까르피에 현대미술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은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실험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재단은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까르피에가 추구하는 ‘창조의 정신’을 오늘날의 언어로 확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까르피에 우먼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창의적인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 책임 주얼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정한 생산과 윤리적 조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럭셔리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까르피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주얼리와 위치를 만드는 메종이 아니다. 그들이 빛어내는 모든 창조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에서 비롯된다. 예술을 통해 시대를 비추고 그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까르피에가 1백70년 넘게 지켜온 진정한 유산이다. 객원 에디터 이민정

Timeless Magnificence

완벽한 균형과 예술적 장엄함을 구현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앙 에킬리브르(En Équilibre)’ 컬렉션. 시간을 초월한 장인 정신과 현대적 미학이 조화를 이루며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의 진정한 도전은 심미적 의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정밀함과 감성으로 채운 독보적인 크리에이션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하이 주얼리 매뉴팩처링 디렉터 알렉사 아빗볼(Alexa Abitbol)

할리아드(Haliade)
딥 블루 사파이어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하고, 그 주위를 감싸는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이 파도의 움직임을 우아하게 형상화했다. 유려한 곡선과 직선의 바(bar) 구조가 교차하며 깊은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달리 반사되어 역동적인 리듬을 완성한다. 완벽한 볼륨감과 부드러운 유연성을 동시에 구현한 이 네크리스는 메종의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정밀함과 크리에이션에서 추구하는 자유로움이 조화를 이루며 하이 주얼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Cafayate

카파야테(Cafayate)
오묘한 빛을 머금은 오팔이 시선을 사로잡는 카파야테 네크리스는 색채의 조화를 탐구한 작품이다. 레드·오렌지·옐로 사파이어가 각각 다른 오팔을 감싸며 따뜻한 빛의 스펙트럼을 그려냈다. 옐로와 핑크 골드로 정교하게 엮은 메시 세팅 위로 움바(Umba) 사파이어가 이어지며 부드러운 리듬을 완성한다. 컬러, 소재, 질감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이 네크리스는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듯한 색감을 발하며 빛을 다루는 까르띠에의 섬세한 감성을 고스란히 전한다.

Vetrata

베트라타(Vetrata)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베트라타 네크리스는 아르데코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다이아몬드가 방사형으로 펼쳐지며, 그 사이사이에 오톤스를 가미해 투명한 광채와 짙은 대비가 어우러진 균형을 완성했다. 정교한 구조 속에서도 놀라운 유연함을 구현하기 위해 까르띠에 장인들은 극도로 섬세한 링크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 섬세한 메커니즘에서 메종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빛이 표면을 따라 흐르며 반사될 때, 네크리스는 마치 건축적 조형물처럼 공간을 빚고 리듬을 만들어낸다. 베트라타 네크리스는 까르띠에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정밀함의 미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한 마스터피스인 셈이다.

비자스(Byzas)

비자스 네크리스는 대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페어 셰이프 사파이어와 에메랄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깊고 선명한 색의 조화를 이룬다. 청명한 블루와 푸른 그린의 대비, 그리고 오픈워크로 완성한 기하학적 세공이 어우러져 빛과 그림자가 자아내는 입체감을 극대화했다. 여백까지 디자인의 일부로 활용한 구조는 장식적인 화려함보다 균형 잡힌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까르띠에의 미학을 보여준다. 비자스 네크리스는 색과 형태, 그리고 정교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긴장감을 통해 하이 주얼리의 본질적인 품격을 전한다.

네모로사(Nemorosa)

자연과 기하학이 조화를 이루는 네모로사 네크리스. 페어 셰이프 에메랄드는 펜던트 형태로, 스퀘어 컷 에메랄드는 다이아몬드·오톤스·랙 크리스털로 구성된 로제트 모티프 속에 자리한다. 스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인비저블 세팅은 메종의 장인 정신과 세공 기술력을 방증한다. 블랙 오톤스의 대담한 터치가 디자인 전체에 깊이를 더하며, 아르데코 특유의 미학을 강조한다.

하이 주얼리는 화려함 속에서 인간의 감성과 기술, 그리고 미학적 사유가 정교하게 교차하는 예술의 세계다. 까르띠에는 그 정점에서 오랜 세월 ‘균형’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왔다. 2025년 메종은 ‘앙 에킬리브르(En Équilibre)’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그 철학의 정수를 다시금 증명한다. 프랑스어로 ‘균형’을 뜻하는 이번 컬렉션은 보석의 순수함과 화려함, 대칭과 비대칭, 채움과 여백이 어우러지며 미묘한 조화를 탐색한다. 컬렉션의 각 피스는 정밀한 구조와 리듬을 통해 아름다움을 시각화하며 기술의 극한과 예술의 정수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이 주얼리 매뉴팩처링 디렉터 알렉사 아빗볼(Alexa Abitbol)은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의 진정한 도전은 심미적 의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전한다. 그녀의 말처럼 모든 작품은 정밀함과 감성이 공존하는 까르띠에의 크리에이션 철학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번 컬렉션은 메종의 헤리티지와 혁신이 한 데 융합되어 아름다운 주얼리의 형태를 넘어 감성을 전달하는 하이 주얼리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다.

객원 에디터 이민정

팬더 리플렉시오(Panthères Reflexio)

메종의 상징적인 존재인 팬더를 모티브로 한 팬더 리플렉시오 네크리스는 그린 투르말린과 드림 셰이프 코랄을 중심으로 완성됐다. 그린 투르말린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팬더가 서로를 마주 보는 대칭 구조로 설계해 네크리스를 보고 있노라면 균형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린과 오렌지의 색채 대비가 선명한 인상을 주며 팬더의 눈에는 에메랄드를 세팅해 강렬한 포인트를 더했다. 또 오톤스로 표현한 팬더의 발톱과 입체적인 무늬는 형태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메종 특유의 정교한 세공미를 보여준다.

비자스 이어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오픈워크 구조로 세팅해 에메랄드가 지닌 깊은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메종의 장인 정신과 정교한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풍부한 색채 대비와 아르데코풍의 대칭미가 조화를 이룬다.



The Icon Returns

단순한 모티브를 넘어 메종의 영혼이자 예술적 대담함으로 자리매김한 까르띠에 팬더.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고 재해석되며 20세기 주얼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중 하나가 된 레전더리한 컬렉션을 재조명한다.



- 1 섬세한 세공과 장인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팬더의 모습을 묘사한 팬더 네크리스.
- 2 까르띠에 매장을 들여다보는 팬더의 모습을 표현한 과거 광고 캠페인 비주얼.
- 3 1949년 원저 공작 부인을 위해 만든 에메랄드 및 블랙 에나멜 장식의 옐로 골드 팬더 브로치.
- 4 1933년, 루이 까르띠에의 요청에 의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자리매김한 잔느 투상.
- 5 1992년 〈보그〉이탈리아에 실린 화보.



모든 것은 1914년, 스타일의 요람이라 불리던 파리 뒤편 13번지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팬더는 오킥스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위치의 형태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팬더의 모습에 매료된 루이 까르띠에가 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든 것. 이 첫 팬더 위치는 매우 추상적인 형태였으나, 색다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순목시계 최초로 팬더의 반점 무늬 모티브를 적용한 블랙 & 화이트 페이빙(paving)은 아르데코 양식의 핵심인 대조법의 노래를 알렸다. 팬더 위치가 등장한 해와 같은 해 까르띠에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조르주 바르비에(George Barbier)에게 의뢰한 주얼리 전시 초대장 디자인에도 팬더가 등장했다. 이때부터 팬더는 까르띠에의 상징적 언어로 자리매김했는데, 이러한 팬더를 영원한 까

르띠에 컬렉션으로 만든 인물이 있다. 바로 당시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잔느 투상이다. 1933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잔느 투상의 지휘 아래 팬더는 조작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며 점차 컬렉션 형태로 확장되어갔다. 잔느 투상은 예술가들이 넘쳐나는 파리의 사교 모임에서 늘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든 이들의 뮤즈 같은 존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까르띠에 창립자의 3대손인 루이 까르띠에를 처음 만났다. 잔느 투상의 뛰어난 심미안과 독창성에 감명받은 루이 까르띠에는 그녀에게 메종 합류를 제안한다. 1933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잔느 투상의 손에서 주얼리, 위치는 물론 핸드백, 소지품 케이스와 담배 케이스에 이어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가 탄생한다. 그 모티브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별명이었던 '팬더'다. 잔느는 팬더를 모티브로 한 주얼리 제작을 위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뱅센(Vincennes) 동물원을 자주 방문했던 디자이너 피에르 르마르상(Pierre Lemarchand)과 협업했다. 그는 마치 조각품과 같은 새로운 실루엣으로 1940년대를 대변하는 위풍당당한 팬더를 제작했으며, 각종 팬더 모티브를 재해석해 20세기 가장 매혹적인 주얼리 작품을 탄생시켰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영감

팬더 컬렉션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처음 등장한 이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조각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형태로 변모하며 진화해온 것. 현대에 와서 팬더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본래의 야생적 이미지에서 때로는 사랑스럽거나 장난스러운 팔색조 매력을 더하며 강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팬더의 정교한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갖춘 채 이외의 요소를 모두 덜어내 뛰어난 착용감과 심플한 매력을 강조한 팬더 드 까르띠에 주얼리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도 팬더 드

- 6 날렵하게 달려드는 팬더의 생생한 움직임이 잘 표현된 팬더 주얼리 위치.
- 7 유연한 두 마리 팬더의 얼굴을 섬세하게 묘사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 8 옐로 골드에 오킥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 9 팬더의 포식자다운 강한 턱처럼 각면 처리한 옐로 골드 소재의 팬더 드 까르띠에 링과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모델.
- 10 볼륨감 넘치는 실루엣과 정교한 세공으로 유연한 팬더 두 마리를 형상화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 11 그레이프 컬러 송아지가죽에 시그너처 팬더 발톱 엠보싱을 더한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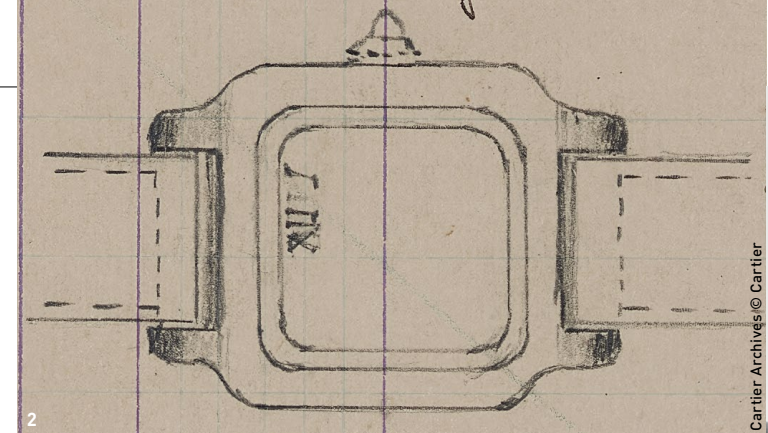
“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콘인 팬더 드 까르띠에는 주얼리와 위치메이킹 모두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



까르띠에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때로는 두 마리의 팬더가 등장해 볼륨감을 더하고, 팬더끼리 교감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생명력과 생동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날카로운 눈빛과 섬세한 표정이 돋보이는 두 마리 팬더는 토크 네크리스, 뱅글 브레이슬릿, 링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얼리로 재탄생했다. 마디 구조를 갖춘 목걸이와 팔찌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2개의 부품을 2개의 골드 브레이드로 교차시키고, 팬더 머리 안에 위치한 2개의 스프링을 연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착용감이 우수하고 유연하다. 한 마리의 팬더를 중앙에 두어 뮤즈이자 주인공으로 표현한 제품도 있다. 에메랄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는 팬더가 이 보석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해 웅장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다른 링에서는 팬더의 부드러운 곡선미보다 기하학적이고 건축적인 직선의 아름다움을 살려 강렬한 야성미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팬더가 시계 페이스를 들여다보며 다가가는 듯한 모습의 프레스치 위치, 위치의 페이스를 물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시간을 움켜쥐면 팬더의 모습을 형상화한 위치 컬렉션까지, 더 다채로워진 팬더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콘인 팬더 드 까르띠에는 주얼리와 위치메이킹 모두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에디터 성경민

Time Takes Flight

1904년, 비행의 순간을 위해 탄생한 산토스 컬렉션.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2025년, 산토스드 까르띠에의 새로운 라인업을 더하며 여전히 그 시대의 정신을 품은 위치메이킹의 정수를 선보인다.



1904년 까르띠에 창립자의 손자인 루이 까르띠에는 친구이자 선구적 비행사였던 알베르토 산토스-뒤몽을 위해 최초의 현대식 손목시계를 고안했다. 비행 중 포켓 위치로는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의 불만을 들은 루이 까르띠에는 하늘 위에서도 쉽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손목에 착용 가능한 시계를 제작한 것이다. 그는 스트랩과 케이스를 연결하는 러그 구조를 도입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를 완성했다. 당시 파리의 기하학적 미학과 아르데코 감성이 깃든 정사각 프레임에 우아한 곡선을 더하고, 감추기 급급했던 스크루를 베젤 위에 과감히 드러낸 디자인은 전례 없는 스타일이었다. 이 시계는 1911년 정식 컬렉션으로 발전하며 '산토스드 까르띠에'라 명명되었고, 1978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골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버전이

1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산토스드 까르띠에 티타늄 워치.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43% 가볍고 1.5배 더 높은 강도를 자랑한다.
2 산토스 뒤몽 워치의 스케치. 최초의 디자인을 현재까지도 계승하고 있다.
3, 4 루이 까르띠에의 친구였던 선구적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
5 스테인리스 스틸과 골드 소재를 결합한 산토스드 까르띠에 미디어 모델과 티타늄 소재로 완성한 산토스드 까르띠에 라지 모델.



등장해 고급 시계의 대중화라는 새 장을 열었다. 그때부터 산토스는 단순한 타임피스를 넘어 혁신의 상징이자 모험성과 자유성을 내포한 타임피스로 자리매김했다.

기술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

산토스드 까르띠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왔다. 정사각 케이스 안의 완벽한 대칭, 베젤 위 스크루 장식, 로마 숫자 인덱스, 그리고 레일 트랙 형태의 미닛 마커가 그 전통을 잇는다. 각 요소는 단순한 장식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브레이슬릿의 유려한 곡선은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까르띠에가 개발한 퀵스위치(QuickSwitch) 교체 시스템과 스마트링크(Smartlink) 조절 기술은 착용자가 별다른 공구 없이 스트랩을 교체하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또 블루 스피넬 세팅 크라운과 소드 핸즈는 까르띠에 위치메이킹의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세련된 품격을 더한다. 이처럼 산토스 컬렉션은 언제나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예술이 공존하는 위치메이킹의 완전한 균형을 상징하며 꾸준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 Valentin Abad © Cartier

1 케이스 사이즈 39.8mm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티타늄 워치. 로마숫자 인덱스, 레일 트랙 형태의 마닛 마커, 그리고 스크루를 더한 베젤 등 산토스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렸다. 2 산토스 컬렉션의 첫 번째 루미넌트 다이얼 워치인 산토스 드 까르띠에 블랙 다이얼 워치. 블랙 다이얼을 장착하고 인덱스와 핸즈에 슈퍼루미노바® 코팅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

고 로마 인덱스와 형광 그린 컬러로 슈퍼루미노바® 처리한 화이트 핸즈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시인성을 확보했다. 또 산토스 컬렉션의 첫 루미넌트 다이얼 워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레일웨이 트랙을 두른 다이얼에 새틴 피니싱, 선레이 브러싱을 절반씩 적용한 마감은 메종이 추구하는 균형미를 한층 극대화한다. 칠각형 크라운에는 블루 패시 합성 스피넬을 세팅해 클래식한 까르띠에의 코드와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모델은 내면에 모험심이 넘치는 이들을 위한 타임피스로 시각적 강렬함과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구현했다.

두 모델 모두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1847 MC'를 탑재해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100m 방수 성능과 안티마그네틱 실리콘 이스케이프 휠, 니켈-인 포인트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해 현대적 기능을 완벽히 겸비했다. 브레이슬릿은 퀵스위치 시스템으로 손쉽게 레더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스마트링크를 통해 각자의 손목 둘레에 맞춘 세밀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객원 에디터 이민정

새롭게 만나는 산토스 컬렉션

2025년 까르띠에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유산을 새롭게 써 내려간다. 비행기처럼, 정교한 디테일에 집중하더라는 테마 아래, 산토스 드 까르띠에에 새로운 모델을 추가했다. 첫 번째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산토스 드 까르띠에 티타늄 워치, 두 번째는 블랙 다이얼과 슈퍼루미노바® 핸즈를 장착한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다. 두 모델 모두 케이스 사이즈 39.8mm의 라지 모델로 선보이며, 러그에서 러그까지의 세로 길이가 47.5mm, 두께는 9.3mm로 구조적 밸런스가 뛰어나다.

산토스 드 까르띠에 티타늄 워치는 오리지널 디자인에 충실하면서도 최첨단 소재를 융합한 모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43% 가볍고, 1.5배 더 단단한 그레이드 5 ELI 티타늄을 사용해 탁월한 내구성과 착용감을 동시에 구현했다. 전면은 마이크로블라스트 처리한 매트 엔트리아이트 컬러로 마감했으며, 블랙 스피넬을 세팅한 크라운이 깊은 대비를 이룬다. 이 미묘한 색조함과 정교한 마감은 항공기의 기계적 미학을 떠올리게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 비해 한결 가벼워진 무게는 착용 시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며, 우아함과 견고함을 모두 갖춘 모험가의 시계라는 산토스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확장했다.

또 하나의 신작인 산토스 드 까르띠에 블랙 다이얼 워치는 보다 대담하고 도시적인 감성을 표방한다. 다이얼 전체를 깊은 블랙으로 처리하

2

© Valentin Abad © Cartier



© Maud Rémi-Louis © Carti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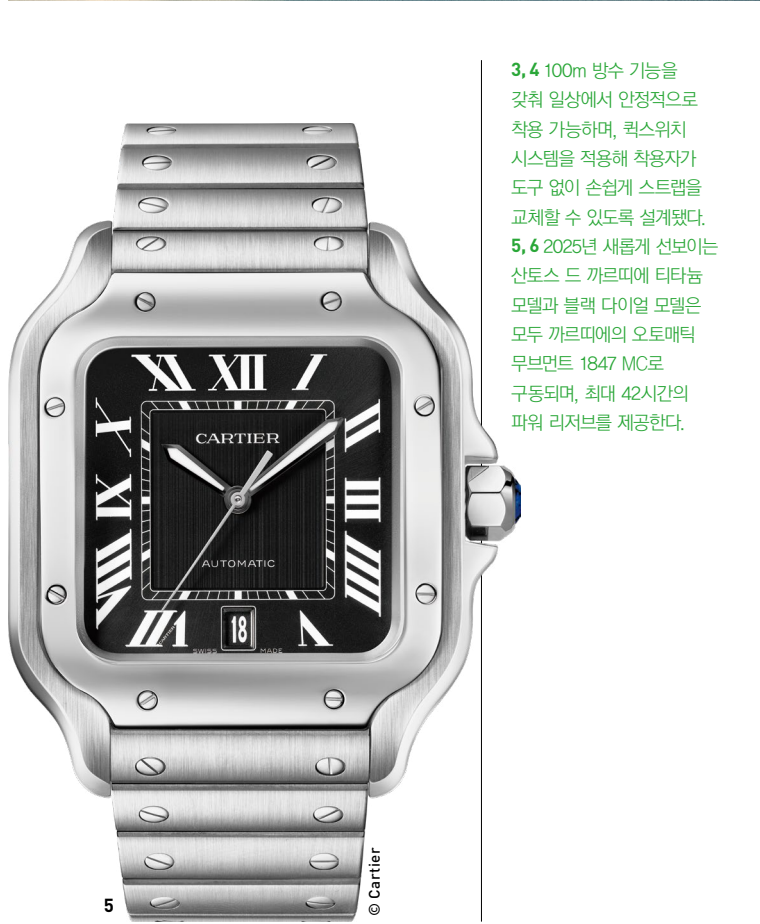
© Cartier



4

“

산토스 드 까르띠에는 그 기원이 하늘을 향했듯,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와 탐험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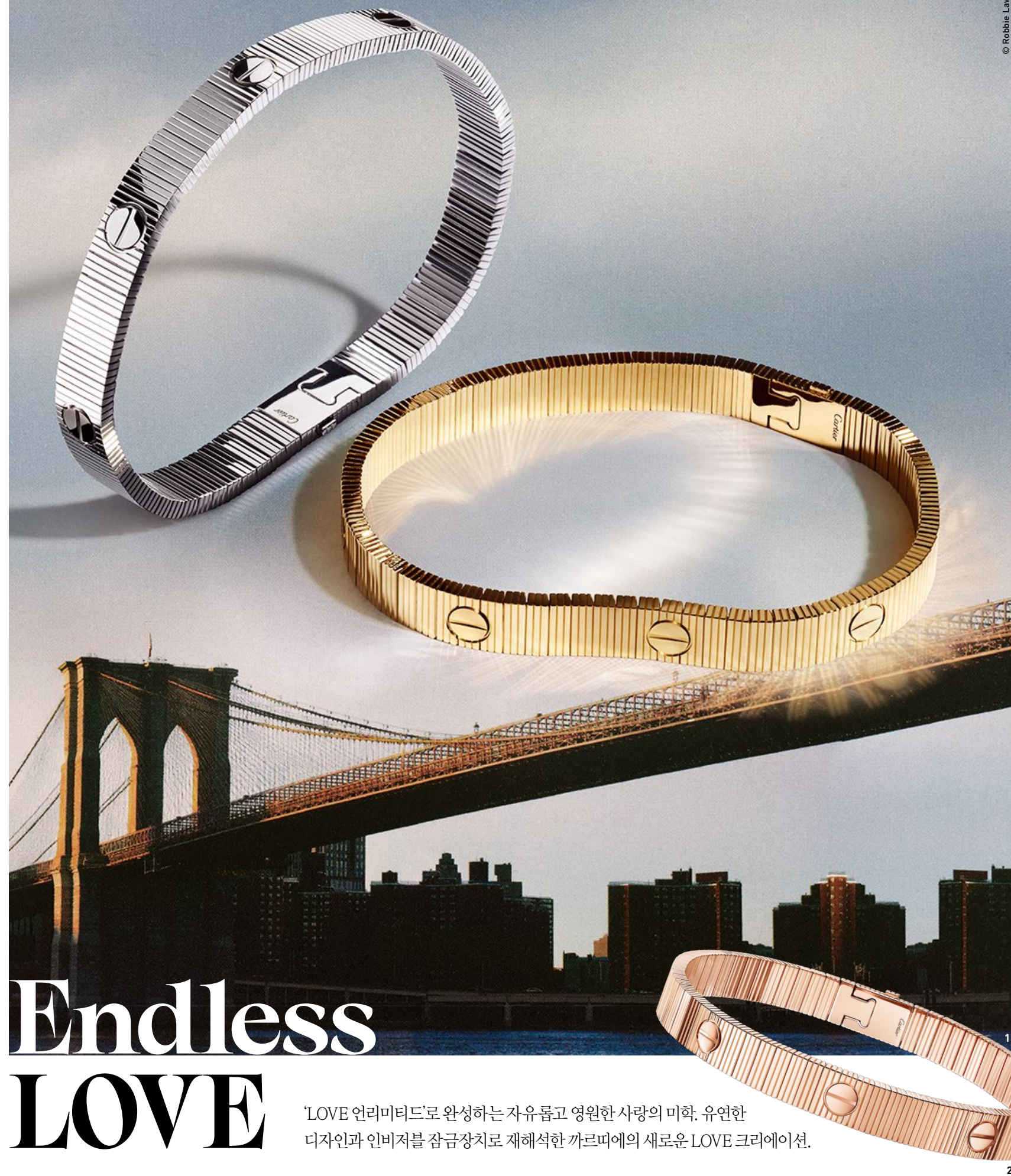
© Cartier

3, 4 100m 방수 기능을 갖춰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착용 가능하며, 퀵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해 착용자가 도구 없이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5, 6 2025년 새롭게 선보이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티타늄 모델과 블랙 다이얼 모델은 모두 까르띠에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1847 MC로 구동되며, 최대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6

© Maud Rémi-Louis © Cartier



Endless LOVE

'LOVE 언리미티드'로 완성하는 자유롭고 영원한 사랑의 미학. 유연한 디자인과 인비저블 잠금장치로 재해석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LOVE 크리에이션.

1969년 뉴욕, 디자이너 알도 치폴로가 탄생시킨 까르띠에의 LOVE 브레이슬릿은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 사랑의 형태를 정의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독특한 잠금장치와 타원형 실루엣, 그리고 스�크루 모티프는 사랑의 헌신과 결속을 상징하며, 반세기 넘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언어로 이어지

고 있다. 까르띠에에는 지난 9월, 이 상징적인 컬렉션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신제품 'LOVE 언리미티드(LOVE Unlimited)'를 추가하며 한계 없는 사랑의 비전을 다시금 펼쳐냈다.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은 유연한 구조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서로 다른 브레이슬릿을 연결해 무한히 확

“

까르띠에 LOVE 컬렉션은 변치 않는 감정의 순수함과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랑의 가치를 전한다

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름 그대로, 끝이 없는 사랑의 연속성을 표현한 셈이다. 인비저블 클래스프(Invisible Clasp) 시스템으로 잠금장치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심플한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세밀하게 폴리싱 처리한 스�크루 디테일이 빛을 반사해 섬세하고

© Robbie Lawrence © Peter Langer © Cartier

©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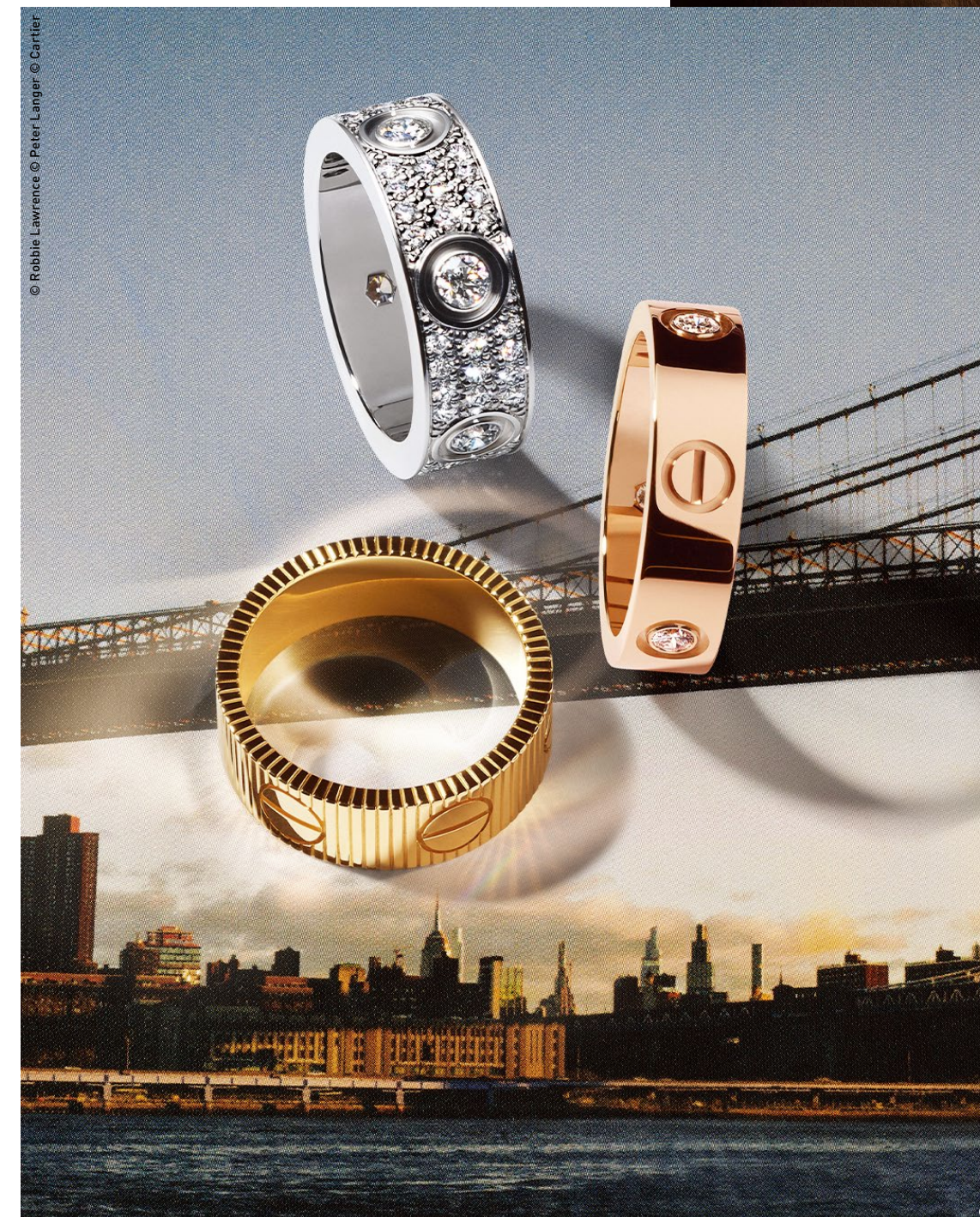
2



강렬한 광채를 발산한다. 까르띠에에는 이처럼 기능과 미학을 완벽히 조화시켜 오직 메종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균형미를 담아냈다. 유연한 브레이슬릿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브레이슬릿은 거드룬 장식 링크(Godroons link)로 구성해 손목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피부에 밀착되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번 컬렉션은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각기 다른 골드가 사랑의 다양한 빛을 표현했다. 옐로 골드는 따뜻한 헌신, 핑크 골드는 열정과 낭만, 화이트 골드는 순수하고 변치 않는 진심을 상징한다. 까르띠에에는 이를 통해 '사랑은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동안 까르띠에에는 LOVE 컬렉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인간 감정의 순수함을 주얼리로 표현해왔다. 'LOVE'를 단순한 관계의 상징을 넘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랑의 형태로써 제시해온 것. 'LOVE 언리미티드'는 이러한 철학을 한층 확장해,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현대적

1 2025년 새롭게 선보이는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거드룬 장식 링크가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2 핑크 골드 소재의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폭 7mm의 구조가 손목 위에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완성한다.
3 LOVE 언리미티드 링. 상징적인 스�크루 모티프를 더했으며, 화이트·핑크·옐로 골드,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4, 5, 6 LOVE 컬렉션의 다채로운 모델을 만날 수 있는 캠페인 이미지.



사랑의 언어를 강조한다. 또 까르띠에에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은 함께 연결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메종이 1백여 년간 이어온 로맨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 전 세계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LOVE 언리미티드'는 브레이슬릿뿐 아니라 링으로도 만날 수 있으며, 까르띠에가 50여 년 이상 이어온 사랑의 유산을 또 한번 우아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객원 에디터 이민정

© Robbie Lawrence © Cartier



© Isabella Elordi

1

The Eternal

까르띠에 LOVE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를 전략적으로 계승한 'LOVE 언리미티드(LOVE Unlimited)' 브레이슬릿은 브랜드가 꿈꾸는 한계 없는 사랑을 새로이 정의한다.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와 영화배우 제이콥 엘로디(Jacob Elordi)가 전하는 까르띠에의 사랑관은 이렇다.

1969년 출시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온 까르띠에 LOVE 컬렉션이 이번 해 유례없는 변신을 시도했다. 이름 그대로 한계 없는 사랑을 전하는 'LOVE 언리미티드'는 종전의 구조적 셰이프와 노출된 스크루 디자인을 고스란히 품어 브랜드의 상징성을 이어간다. 한편 반원으로 구성된 견고한 오벌형 셰이프는 거드룬 장식의 링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더했다. 전용 드라이버로만 착용 및 해제 가능한 디자인에는 인비저블 잠금장치를 새로 적용해 탈착하기 쉬워졌으며, 동시에 또 다른 브레이슬릿과 연결이 가능해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까르띠에는 새롭게 변신한 이번 컬렉션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의 연출 아래, 까르띠에 앰배서더로 선정된 호주 출신 배우 제이콥 엘로디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것. 뉴욕을 배경으로 담은 그의 다정한 눈빛과 모습은 오리지



© Isabella Elordi

2

널 LOVE 브레이슬릿, 새로운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과 교차되어 한결 친밀하게 다가온다. 영상의 비하인드 스틸 컷은 배우의 여동생이자 사진작가인 이사벨라 엘로디(Isabella Elordi)가 맡아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의미를 높였다. 기존 컬렉션의 아쉬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 완성한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은 까르띠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무한함을 공고히 내포하고 있다. 에디터 김하얀



© Isabella Elordi

4



사랑이 주제인 만큼 친밀한 분위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죠. 영상은 뉴욕이라는 공간에서 제이콥과 낭만적인 주말을 함께 보내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무한한 사랑이 피어나듯 그의 어깨 너머로 끝없는 가능성을 품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이콥의 꾸밈없는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by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



© Sofia Coppola

3



© Isabella Elordi

5



© Sofia Coppola

6

- 1 까르띠에의 신제품, LOVE 언리미티드의 캠페인 촬영을 위해 영화배우 제이콥 엘로디가 뉴욕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가 컬렉션의 취지에 맞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하고 있다.
- 3 옐로 골드 버전의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 4, 5 화이트 골드의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2개를 레이어드해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
- 6 제이콥 엘로디가 착용한 거드룬 장식의 화이트 골드 LOVE 언리미티드 링과 브레이슬릿.

Christmas Dream

마법처럼 반짝이는파리의 밤, 그리고 그 속을 누비는 베이비 팬더들. 까르띠에는 올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메종의 탄생지 뒤편 13번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선물의 예술을 다시금 일깨운다.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
까르띠에의 대담한 정신을
가장 원시적으로 보여준
절작성인 클래쉬 드 까르띠에.
기하학적인 스티드와 부드러운
곡선이 맞물리며 충돌 속의
조화를 그려냈다. 뚜렷한
개성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즐기는 이에게 이상적인 선물.

Thurstan Redding © Cartier



라 팬더 오드 퍼퐁
자유롭고 열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향기로 표현했다. 은은한
가르데니아 향과 관능적인
머스크 노트가 어우러져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매혹적인 향이 특징이다.
까르띠에의 조향사 마틸드
로랑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향수는 메종의 아이콘인 팬더를
정교하게 새긴 보틀에 담아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더했다.

Thurstan Redding © Cartier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두 마리의 팬더가 서로
마주 보는 형상의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위에 오크스, 차보라이트
가닛, 블랙 라커를 세팅해
팬더의 생명력과 대담함을
생생하게 담았다.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1969년 첫선을 보인 LOVE
브레이슬릿은 스크루
드라이버로 잠그는 구조로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다.
새롭게 선보인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은
유연한 골드 링크가 흐르듯
손목을 감싸며 사랑의
형태를 새롭게 완성했다.
을 연말,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선물이다.

Thurstan Redding © Cartier

Thurstan Redding © Cartier

산토스 드 까르띠에에 티타늄
워치 새롭게 선보이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로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볍고
강한 소재가 만들어내는
견고한 존재감, 그리고 스크루
장식의 상징성, 기능과
디자인의 균형을 완벽히
구현한 이 시계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현대인에게
선물하기에 제격이다.

발롱 블루 두 까르띠에 워치
36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을 장착한
데이& 나이트 컴플리케이션
워치. 밤하늘을 상징하는
다이얼과 낮·밤 인디케이터가
시적인 시간을 완성하며, 블루
엘리게이터 스킵스랩이 우아함을
배가한다. 합계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انس뎃춤인 연발 선물이다.

Thurstan Redding © Cartier

STYLECHOSHUN.COM 대표 양영호 편집장 김유진 기자 권·보미 디렉터 송희민 에디터 임정현 강연: 바버라 박영하, 김준호, 이영희, 유우희
제작: 김경기 저자 노건형 발매: 세븐 앤드 테일러비즈니스 윌리엄스 펄러블(주)스타일존스텔리 웅산구 베링로 40-3 4층 대아미술관 비즈니스센터 10층 기숙 및 광고부 02-749-5665

팬더도 까르마에 위치
1983년 탄생한 팬더도 까르마에
위치한 단순한 시가지 아닌
매출을 대표하는 우회점의
유연성과 같다. 사적 케이스와
상업권 링크 브레이크아웃이
조화를 이루어 스텝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곳
자체가 영혼하다. 팬더의
유연성과 강인함은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으로 중독
원칙의 경계를 허물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보다
시상받은 위치를 전할지도
싫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듯하다.
문의 1877-4326
객원 에디터 이민정



Cartier